

한국에서의 유엔 프랑스대대

1950 년 12 월~1953 년 11 월

공격

1950 년 6 월 25 일, 유럽과 미국 신문사의 텔렉스가 전한 소식이 충격을 주었다.

“새벽, 북한 기갑 부대가 38 선을 따라 총공격했고 남한을 침략했다.” (원문대로)

북한의 7 개 사단은 전차 150 대, 비행기 150 대의 지원을 받아 전차도, 비행기도 없는 남한의 4 개 사단으로 돌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자에게 전투 중지를 권고했다. 미국은 침략자에 대한 군사 제재를 요구했고 남한에 대한 해군 및 공군 지원을 개시했다. 첫 번째 지원군은 상징적이었다. 병력 70 명의 2 개 대형 소대였는데, 이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전력은 1 개 대대, 이후 1 개 연대로 점차 보강되게 된다. 7 월 5 일에는 제 24 사단이 도착했고, 7 월 9 일에는 제 25 사단, 8 월 1 일에는 제 2 사단이 도착했다.

유엔 총회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과 그 위성국가를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규탄한 침략자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6 월 30 일부터 군사 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의 참전

대전(Taejon)이 함락된 7 월 22 일,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유엔군 참가를 결정했고 즉각 유엔군에게 극동해군의 프리깃 라 그랑디에르(La Grandière)호를 파견했다.

8 월 25 일, 프랑스는 각종 병과의 지원자로만 이루어진 군단 배속 대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단에 배속되는 미국식 대대인 이 대대는 9 월 1 일부터 르망(Le Mans) 근처의 오부르 훈련 기지(camp d'Auvours)에 들어갔다. 병력은 장교 39 명, 부사관 172 명, 병사 806 명이었고, 별도로 장교 10 명, 부사관 40 명, 병사 350 명의 보충 부대가 첫 번째 지원군으로 대대와 함께 출발하게 된다. 장교 20 명, 부사관 90 명, 병사 400 명의 후방 부대는 대대의 예비 병력으로 프랑스에 남게 된다.

이 대대는 유엔군 예하 프랑스 지상군 부대(Forces terrestres françaises de l'O.N.U., F.T.F.O.N.U.)로 지휘권은 마그랭 베르느레(Magrin Verneret) 중장에게 주어졌다. 1950 년 9 월 18 일에는 몽클라르(Monclar)라고 불리는 이 중장에게 육군성 차관의 결정으로 F.T.F.O.N.U. 참모부가 맡겨졌다. 미국 대대의 경우 중령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몽클라르(Monclar) 장군은 중령 계급을 달았다.

대대의 구성

몽클라르(Monclar) 장군은 대대를 직접 지휘할 때 대대장인 르 미르(Le Mire) 소령의 보좌를 받았으며, 르 미르(Le Mire) 휘하에는 2 명의 부사령관, 즉 르 메를 드 보퐁(Le Merle de Beaufond) 소령과 바르텔레미(Barthélémy) 소령이 있었다. 군의관인 장-루이(Jean-Louis) 소령은 대대의 참모부에 속했다.

오부르(Auvours)에는 현역 및 예비역 출신의 지원자들이 모여들었다. 선발은 외관 신체검사로 이루어졌다. 현역과 예비역의 비율은 장교는 각각 50%, 부사관은 현역 70%, 예비역 30%, 병사는 현역 10%, 예비역 90%였다.

부대가 형성되면서 각 부대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드 카스트리(de Castries) 대위의 제 1 중대는 대부분 해병대 출신들이었고, 위샤르(Huschar) 대위의 제 2 중대는 수도 방위 보병 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었으며, 세르(Serre) 대위의 제 3 중대는 낙하산 부대와 외인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르 메트르(Le Maître) 대위의 지원 중대는 단연 기술병들과 포병들로 구성되었고, 베레르(Bererd) 대위의 본부 중대는 검증된 또는 검증이 필요한 기타 기술병들로 구성되었다.

10 월 1 일, 약자로 유엔 프랑스대대(bataillon français de l'O.N.U., B.F.O.N.U.)라는 대대가 창설되었으며 머지않아 'bœuf' ONU'라고 불리게 되었다. 10 월 25 일, 유엔 프랑스대대는 마르세유(Marseille)에서 수송선 아토스(Athos) 2 호에 올랐다.

한국 도착

1950 년 11 월 29 일

중공군이 압록강(Yalou)으로 들어온 다음 날인 11 월 29 일, 유엔 프랑스대대는 부산(Fusan)에 상륙해 병력 이동 관리 책임자인 그린(Green) 대위의 환영을 받았다.

12 월 1 일부터 엄습한 추위로 인해 대구(Taegu)까지 철도 이동한 프랑스대대는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캠프 워커 훈련소의 막사에 머물렀다.

프랑스대대는 단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며 장비에 익숙해지고 초과분의 장비를 더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트럭 18 대와 지프 44 대만을 보유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차량 보유 수를 재조정했고 장비표와는 상이하게 되었다.

기온이 영하 8 도에서 10 도였던 12 월 10 일, 프랑스대대는 좁고 울퉁불퉁하며 구불구불한 빙판길을 따라 트럭을 타고 수원 방향으로 이동했다. 12 월 11 일, 프랑스대대는 그 유명한 '인디언 머리'의 미 제 2 보병사단의 제 23 보병연대에 합류했다. 제 2 사단은 무리니(Murini) 사건² 이후 서울 남쪽에서 재편성 중이었다. 이 사건 당시 제 2 사단은 중공군 2 개 군단의 공격을 받아 사실상 궤멸 상태였고 생존자들을 겨우 빼내 올 수 있었다.

¹ 프랑스어로 '소'를 뜻한다.

² 군우리 사건 오기

1. 기동전

미 제 2 보병사단 배속 부대인 유엔 프랑스대대

유엔 프랑스대대는 배속 부대로서 미 제 23 보병연대에 속하게 되었다. 미 제 2 보병사단 내에서 네덜란드군 대대는 제 30 보병연대에, 태국군 대대는 제 9 보병연대에 속했다. 프리먼(Freeman) 대령은 제 23 연대를 지휘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자주 난민 인파에 잠입해 밤에 대거 침투했다. 이들은 새벽에 연합군 부대가 뒤를 돌아볼 때 또는 무방비 상태일 때 뒤에서 나타났다. 이에 연합군 부대는 포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최대한 확실하게 벗어나고 싶다는 걱정만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대대는 전쟁에 매우 빠르게 투입되었고 전쟁의 분위기는 고되고, 사기를 저하하고, 소모적이며, 연속된 전선도, 여유도, 휴식도 없었다. 최후의 진지(陣地)를 구축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춘천(Chunchon)에 포위된 한국군 사단을 구출하기 위해 제 2 사단 전체와 함께 다시 북쪽으로 이동한 프랑스대대는 1 월 5 일, 대규모 이동과 질척거리고 무거운 진흙에서 계속되는 추위 속 정찰로 인해 몹시 피로했지만, 아직 발포 한 번 해보지 못한 상태였다.

얼마 전 간신히 후퇴했으며 원주(Wonju) 방어를 위해 회군한 제 2 사단은 이날, 서쪽의 미 제 1 군단, 동쪽의 한국군 사단 사이에 형성된 공백 지점에 정확히 위치하게 되면서 적의 압박을 가장 크게 받게 되었다.

원주(Wonju)

1951 년 1 월 10 일

미 제 2 보병사단은 알몬드(Almond) 장군이 이끄는 미 제 10 군단의 선두 부대로, 해당 부대는 절묘했던 흥남(Hungnam) 철수 작전 이후 재편성 중이었다. 제 2 사단의 지휘권은 러프너(Ruffner) 장군이 잡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워커(Walker) 장군을 대신해 미 제 8 군을 지휘하게 된 리지웨이(Ridgway) 장군은 작전 속도를 올렸다. 명령은 적을 저지하고 공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1 월 10 일, 원주(Wonju)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던 유엔 프랑스대대가 저항하며 화려했게 부상하고 있을 때 라이넬(Lainel)³ 중위, 르 루아르(Le Loire) 하사, 제 3 중대의 총검 돌격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대대는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전설도 가지게 되었다. 원주(Wonju)에서 발생한 프랑스대대의 첫 전사자는 연락 장교 델모트(Delmotte) 중위였다.

³ 라니엘(Laniel) 오기

한국군 중대의 탄생

1951 년 1 월 11 일

1 월 11 일, 유엔 프랑스대대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한국인 장교 1 명과 한국군 병사 70 명이 프랑스대대에 배속된 것이다. 6 월에 한국군 사단을 쓰러지게 한 최초의 교전 이후 한국군은 재편성되었지만, 겨우내 중공군의 새로운 공세로 인해 새로 편성된 부대들은 매우 큰 시련을 겪었다. 이들은 회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통솔 문제를 겪었다. 따라서 이시만(Syman Rhee)⁴ 대통령은 자신이 통솔할 수 없는 한국군 부대를 유엔군 부대에 배속하기로 했고, 한국군 부대는 유엔군 부대와 연합해 유엔군 부대의 보강 병력이 되게 된다. 프랑스대대에게 이 연합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몽클라르(Monclar) 장군은 한국군 병사의 정당한 자긍심과 가치를 고려해 한국군의 작은 중대 창설을 결정했고 지휘권을 구필(Goupil) 대위에게 맡겼다. 몇몇 병사는 자신의 개인 호위를 위해, 나머지 병사는 담가병(擔架兵)⁵ 보강을 위해 남겨두었다.

한국군 중대는 쌍터널(Twin Tunnels) 전투를 비롯해 여러 전투에서 역량을 발휘해 한 달 뒤인 2 월 11 일, 프랑스대대에 새로운 100 명의 '한국군'이 배속됨에 따라 한국군 중대는 중대 표준 인원을 갖추게 되었으며, 담가병 30 명으로 구성된 특수 소대를 창설할 수 있게 된다. 6 월 20 일, 프랑스군과 한국군의 연대가 형성되고 그 전투력이 증명되어 한국군 중대는 프랑스대대에 완전히 통합되고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프랑스대대 제 2 중대로 남게 된다.

2 월 11 일 밤의 프랑스대대로 돌아가면 당시 프랑스대대는 중공군을 물리쳤으나, 다음 날 아침 갑작스레 고립되었다. 미 제 2 보병사단의 부대들이 너무 선두에 있다고 생각한 사령부는 후퇴를 명령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공군은 따라오지 않았다. 교전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프랑스대대부터 차량화 파견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찰대가 포병대의 지원도, 비포장도로의 열악한 상태로 인해 빠르게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자주 전방 17km 지점까지 투입되었다. 적군 1 개 사단 전체를 감출 수 있는 숲이 우거진 산이 눈 덮인 언덕들을 끝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풍경 속에서 부대들과 중대들은 함정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곳에서는 미 기계화 1 개 소대가 매복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세르(Serre) 대위의 제 3 중대는 정보를 확인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안이 중차대해 대대장 바르텔레미(Barthélemy)⁶가 정찰을 따라갔고 르 메트르(Le Maître) 대위와 장-루이(Jean-Louis) 소령도 함께했다. 프랑스 정찰대는 정찰 측에 '대담하게' 가기보다는 산으로 들어갔고 고된 행군을 하며 우회 작전을 실행하여 산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적군이 모여 있던 돌출된 절벽에 도달했다. 짧은 전투 후 후퇴했고 중공군이 이들 뒤에 빠르게 파 놓은 함정을 빠져나왔다. 프랑스 파견대는 중공군이 북한군과 교대해 물려왔다는 중요한 정보를 보고했을

⁴ 이승만 오기

⁵ 들것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병사

⁶ Barthélemy 오기

뿐만 아니라, 경찰 측에서 매우 취약한 차량을 이용한 침입보다는 이러한 종류의 도보를 이용한 습격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쌍터널 전투

1951년 2월 2일

1월 30일, 미 제2보병사단은 문낭니(Munnangni)⁷ 골짜기에서 정비했다. 그곳에서 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리지웨이(Ridgway) 장군이 계획한 공세 재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전을 재개하고 이동해야 했다. 미 제9보병연대가 고립 지대 깊숙한 곳의 문낭니(Munnangni)⁸ 골짜기를 지킬 동안 미 제38보병연대가 원주(Wonju) 방향으로 돌진하고, 서쪽 20km 지점에서는 미 제23보병연대가 지평리(Chipyong-Ni) 방향으로 향하는 계획이었다. 같은 날 저녁, 제23연대 제3대대와 유엔프랑스대대로 이루어진 특수 임무 부대가 장암리(Changam Ni)에 도착했고 2월 1일 오전 6시에 다시 출발했다. 프랑스대대는 지평리(Chipyon Ni)⁹ 도로 서쪽으로 전진했다. 병사들은 등에 무거운 장비를 맨 채 열고 가파른 언덕길에서 고생했다. 몽클라르(Monclar) 장군도 그들 중 하나였다. 나이 든 사령관이 이 힘든 골고다 언덕을 곳곳하게 애쓰며 오르는 모습을 본 한 병사는 “그가 오늘 중령 계급장을 달았다.”라고 감격하며 말했다. 그날 밤, 프랑스대대는 지평리(Chipyon Ni)¹⁰ 남쪽 4km 지점의 쌍터널(Twin Tunnels) 지역에 도착했다. 두 대대는 주력 부대의 전방 15km 지점에 있었다. 프랑스대대는 지평리(Chipyong Ni) 도로의 고개와 239 고지, 453 고지에서 정비했다. 바로 여기서 2월 2일 오전 5시부터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예비 병력으로 공병 소대와 2개 분대밖에 없었다. 포화의 홍수 속에서 거점은 지켜졌고 이후 공격을 당한 곳은 반격으로 되찾았다. 제3중대에서는 니콜라이(Nicolaï) 중령이 전사했다. 제2중대에서는 57mm 무반동총 사격수가 포탄 5발로 병사 23명의 1개 소대를 무너뜨렸다. 지원 중대에서는 기관총 사수들이 육탄으로 포를 지켰다. 르 메트르(Le Maître) 대위도 전사했다. 공병이 반격에 나섰고 지원 중대를 구출했다. 특수 임무 부대의 포병대는 겨우 후방 3km 지점에 있었지만 두 대대의 전선을 지원할 탄약이 충분하지 않았다. 박격포는 엄청난 속도로 포를 쏘아 댔다. 제3중대 오른쪽에 있던 제23연대 제3대대의 1개 소대가 탄약이 부족해지려고 하자 프랑스군과 미군의 운전병, 통신병, 담가병이 탄약을 마련해 주었다. 이 전투에 감명받은 프랑스 병사 위그(Huges)는 미군 소대에 남았고 전사하게 된다.

제3중대에서 세르(Serre) 대위는 치명상을 입었고, 어깨 부상을 입은 바르텔레미(Barthélemy¹¹) 소령은 부대에 머물렀다. 제3중대는 약해지기 시작했다. 드 보퐁(de Beaufond) 소령은 구필(Goupil) 대위가

⁷ 문막리 오기

⁸ 문막리 오기

⁹ 지평리 오기

¹⁰ 지평리 오기

¹¹ Barthélémy 오기

이끄는 한국군 1 개 소대와 함께 반격했다. 수류탄과 경기관총으로 능선이 탈환되었다. 제 2 사단장의 부사령관인 스튜어드(Steward) 장군은 무선전보로 냉랭히 전해지는 러프너(Ruffner) 장군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만약 네가 나와 네 병사들의 목숨을 위한다면 우리에게 실탄과 포탄을 보내는 편이 좋다.” 1 시간 뒤 연대가 보낸 1 개 중대가 이동에 성공해 그들의 진지에서 피를 많이 흘린 제 3 중대를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공군이 구름을 뚫고 아군을 기관총으로 지원했다. 대형 화물 수송기 6 대가 산 사이로 미끄러지듯 날아와 탄약을 낙하산으로 투하했다. 밤이 되자 중공군은 사라졌다. 중공군 2 개 연대가 공격에 나섰는데, 병사 1,600 명이 전투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 전투로 프랑스대대는 첫 번째 프랑스군 표창과 미국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 이러한 포상을 받은 첫 번째 유엔군 부대였다.

2 월 3 일, 아군 정찰대가 지평리(Chipyong Ni)에 도착했고 그곳은 황량했다. 같은 날 저녁, 포병 중대 3 개, 중포병 중대 1 개, 전차 중대 1 개, 정찰 중대 1 개, 공병 중대 1 개, 특공 중대 1 개, 방공 포병 중대 1 개로 보강된 제 23 연대가 길이 뚫려 도착했고, 도시 주변의 낮은 언덕들에 화기로 무장한 진지를 구축했다.

지평리(Chipyong-Ni)

1951 년 2 월 13 일~15 일

리지웨이(Ridgway) 장군은 골짜기들이 나뉘는 주요 갈림길에서 중공군 공세에 대항 조치를 하고자 했다. 해당 갈림길은 아군 공세의 작전선을 지키고 적군의 작전선을 위협하는 데 중요한 곳이었다. 전선의 전방 20km 지점에서 미 제 23 연대의 연합 전투 부대가 ‘회전하는 닻(ancrage tournant)¹²⁾’이 되고 이곳에서 겨우내 연합군 공세가 모여 적군이 대응하게 되는 계획이었다.

고도 300m~500m 의 봉우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고도 100m~200m 의 낮은 언덕들에 둘레 5km 의 방어 진지가 구축되었다. 프랑스군은 평지와 철로가 있는 서쪽에 위치했다. 봉우리에는 정찰대를 보내고 땅은 휘발유나 폭발로 녹이면서 방어를 준비했다. 적의 포위가 다시 좁혀져 왔다. 제 2 중대는 적군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고, 중공군의 공격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었는지 충분히 보여주는 거대한 탄약고를 폭발시켰다. 바로 이 진지에서 프랑스군의 첫 번째 지원군이 프랑스대대에 합류했다. 전면적인 포위 전에 통과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일련의 트럭과 함께였다.

2 월 13 일, 몹시 추웠던 밤 10 시에 공격은 시작되었고 동시에 서울(Séoul)에서 원주(Wonju)까지의 모든 전선에서도 공격이 시작되었다.

밤새 포화의 지옥 속에서 공격과 반격이 반복되었다. 한 병사는 “밤이 번쩍었다.”라고 묘사했다. 사령부와 기차는 중공군 포병대에게 짓밟혔다. 프리먼(Freeman) 대령도 부상을 당했다. 공병은

¹²⁾ ‘고정중양(abcès de fixation)’과 동의어이다. ‘고정중양’은 자체로는 좋지 않지만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건을 뜻한다.

근거리에서 발포했는데, 단 한 번의 속사가 중공군 33 명을 쓰러뜨렸고 그중 22 명이 전사했다. 프랑스대대는 박격포 600 발을 쏘았다. 새벽에도 진지는 지켜졌다. 2 월 14 일은 상대적으로 평온했고 헬리콥터가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화물 수송기들은 탄약을 낙하산으로 투하했다. 그러나 중공군 4 개 사단이 제 23 연대의 연합 전투 부대를 은밀하게 포위했고 쌍터널(Twin Tunnels) 방향으로 밀고 올라오던 영국군 1 개 여단과 곡수리(Koksuri)를 통해 밀고 올라오던 미 제 5 기갑연대가 지원하려고 했으나 수포가 되었다.

2 월 14 일에서 15 일로 넘어가는 밤 동안 공격이 재개되었지만, 다코타(Dakota) 수송기¹³ 1 대가 방어군을 지원하고 안심시키는 조명탄을 계속해서 낙하산으로 투하했다.

2 월 15 일, 미 제 2 대대는 공군이 다시 개입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오후 4 시쯤 제 5 기갑연대의 전차 몇 대가 뚫고 들어오는 데 성공했고 지평리(Chipyong-Ni)에 도착했다. 보병 지원 중대는 병사가 13 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밤이 되자 중공군이 진지 주위에 우글거렸다. 새벽에 중공군은 전사자들을 실어 나르고 사라지게 된다.

군단장 알몬드(Almond) 장군은 헬리콥터로 지평리(Chipyong Ni)에 도착했고 병사들을 치하했다. 그리고 은성훈장(Silver Star) 20 개를 수여하게 된다. 이때 프랑스대대는 두 번째 프랑스군 표창과 미국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

중공군의 공세는 둔화했다. 연합군 전선은 붕괴되지는 않은 채 천천히 밀렸지만, 지평리(Chipyong Ni) 연결점은 확보되었고 이 견고한 '정착'을 바탕으로 연합군은 외부에서 이동한 후 중공군을 단념하게 할 수 있었다. 연합군은 곧 반격에 나섰다. 2 월 16 일, 제 23 연대의 연합 전투 부대는 제 5 기갑연대와 교대했고 프랑스대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 2 선인 원주(Wonju)로 이동했다.

1037 고지

1951 년 3 월

이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랑스대대 부대들은 다시 전선으로 올라가야 했고 지쳐 있는 제 38 연대의 전선에서 생긴 공백을 메워야 했다. 또한 중공군과의 대대적인 전투를 피해 고립되어 굶주린 채 산을 떠돌고 있는 수십 명의 뒤쳐진 미군을 구출하기 위해 정찰대에 합류해야 했다. 제 10 군단은 몰려오는 중공군 19 개 사단에 저항했다. 2 월 22 일, 맥아더(Mac-Arthur) 장군은 제 10 군단 전선을 방문했다. 그는 부대 모든 지휘관에게 군사 작전을 설명하며 "적의 병력이 우리 군보다 6 배에서 10 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괴멸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제 3 중대를 치하하며 "내가 밟고 있는 이 한국 땅은 지금은 프랑스대대의 전쟁터다. 프랑스대대는 자신의 피로 한국 땅을 물들였다."라고 선포했다.

¹³ C-47 수송기에 영국이 붙인 별명

3 월 2 일, 프랑스대대는 다시 전선으로 올라가 내리는 눈 속에서 1126 고지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1 개 대대와 교대했다. 맞은 편에는 중공군 2 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높은 삼각형 테이블 모양의 1037 고지가 있었다.

3 월 5 일 오전 9 시, 비교적 가벼운 공격준비 사격 후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프랑스대대는 적군의 엄폐호로 가득한 이 가파른 언덕길을 향해 돌진했다. 중공군은 수류탄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수류탄이 우리군의 한가운데까지 굴러왔다. 반면, 중공군 참호에 적중되지 못한 아군의 수류탄은 아군 쪽으로 도로 굴러내려왔다. 언덕길은 미끄러웠다. 아군 부대 중 하나가 능선을 오르는 데 성공하자마자 부대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중공군의 근거리 반격에 맞서 싸웠다. 오후 4 시경, 마침내 공군이 공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능선에 도달했지만, 중공군의 포병대가 능선을 휩쓸었고 중공군은 반격을 준비했다.

한국군 연대는 밤이 오기 전에 프랑스대대와 교대해야 했다. 이들은 마치 열병식을 하듯 전진했고 중공군에게 위치를 들려 집중포화를 당했다. 연대는 진지에 도착했다. 유일한 지원군인 아군 공군이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이 한국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프랑스군은 한국 전우들과 함께 머물렀다. 바르텔레미(Barthélémy) 소령은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다.

밤에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프랑스대대는 사상자들을 가파른 경사면으로 이송하며 후퇴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병사는 “전투는 참혹했었다. 하지만 전사자들의 시체와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것은 악몽 그 자체였다.”라고 훗날 증언하기도 했다. 이날, 프랑스대대에서는 장교 6 명을 포함해 143 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대 명령서에는 “1037 고지에서 프랑스대대는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적으로부터 철통같은 방어진지를 탈취할 수 있는 소수의 정예 부대와 견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적혀있었다.

38 선을 넘어

1951 년 4 월 5 일

미 제 8 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횡성(Hoengsong)으로 가는 길, 눈은 차츰 진눈깨비로 바뀌어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제 2 사단 대대들은 중공군이 앞서 남겨놓은 함정과 지뢰 속에서 끊임없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능선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다. 그리고 3 월 말, 적군은 갑자기 달아났다. 제 2 사단은 빠른 유속에 물이 탁하고 폭이 넓은 홍천강(Hongchon-Gang)에 도착했다. 4 월 3 일, 제 23 보병연대는 춘천(Chunchon)을 통과했다. 4 월 5 일, 프랑스대대는 38 선을 넘어 화천(Hwachon) 저수지에 도착했고 같은 날, 제 1 기갑사단의 부대들도 도착했다. 중대들은 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보급 수송 부대는 후방 10km 이상 지점에 있었고 한국군들도 험준한 오솔길을 이용하여 물자 보급을 도왔다.

4 월 22 일에서 23 일로 넘어가는 밤, 중공군 제 4 사단은 미 제 10 군단과 한국군 제 1 군단 사이 빈틈을 공격했다. 프랑스대대는 후퇴하면서 제 2 사단의 측면을 노출한 한국군 제 5 해병연대의 일부 부대를 받아들였다. 부대에서 분리된 한국군 제 5 사단의 한국군 2 개 중대 및 1 개 전차 중대, 1 개 정찰 중대, 1 개 레인저 중대와 함께 프랑스대대는 특수 임무 부대가 되었고 이 부대는 돌파구 가장자리 높은 곳에 있었다. 이틀간의 전투 후 양구(Yanggu) 남쪽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은 프랑스대대는 자은리(Chauni) 도로 양쪽에 자리 잡았다.

5 월 10 일, 군의관인 장-루이(Jean-Louis) 소령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뢰밭에 갔다가 중상을 입은 한국군 두 명을 구하러 가는 중에 전사했다.

5 월의 살육

5 월 16 일~23 일, 부채뜰(Putchaetul) 방어벽

5 월 15 일에서 16 일로 넘어가는 밤, 중공군이 공격을 시작했다. 6 개 군단과 미 제 10 군단이 대치했고 제 2 보병사단은 홀로 4 개 군단과 전투를 벌였다. 새벽에 중공군 무리는 벌어진 틈새를 통해서만 밀려들었다. 1 개 연대 전차 부대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대대는 부채뜰(Putchaetul) 계곡에 생긴 틈새를 막아야 했다. 프랑스대대는 저항선을 넘어 유일한 보급로를 위협하며 가리산(Karisan) 협곡으로 교묘하게 침투한 중공군에 맞서 싸웠다.

가리산(Karisan)의 한 능선에서 전투를 시작한 제 1 중대와 한국군 중대는 부사령관이 이끄는 제 3 중대 군사 작전에서 주축이 되어 싸웠지만 중공군이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한국군 중대 2 개 소대는 말 그대로 잡아먹히다시피 한 상황이 되었고 제 1 중대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팔리즈(Falize¹⁴) 상사의 공병 소대는 제 1 중대의 후퇴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했지만 쓰러졌다. 지원 중대는 계곡에서 방어벽 구축을 위해 운전병, 박격포병, 보급병 등 가능한 모든 병력을 전방에 투입했다. 미 공병 2 개 소대와 우연히 그곳에 있던 한국군 1 개 소대가 여기에 합류했다. 후퇴 명령을 받았던 전차장 폰 할반(Von Halban) 소령은 방어벽을 강화하기 위해 셔먼 5 대를 대동하여 돌아와 “전우들이 곤궁에 처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 3 중대는 우회 작전에 성공, 중공군 바로 뒤까지 따라잡았지만, 이번에는 제 3 중대가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제 3 중대는 우측에 노출된 진지를 지원하러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행히 중공군은 더 이상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때문에 이들은 공격을 체계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제 1 중대와 제 3 중대는 자정이 되어서야 오른편 고지들에 다다랐다. 동이 틀 무렵 프랑스대대는 자신들과 제 23 연대의 제 2 대대, 제 3 대대를 제외하고 사단 전체가 후방 6km 지점으로 후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는 서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사단을 보호해 이들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주는

¹⁴ Falise 오기

것이였다. 화포와 박격포가 완벽하게 지원 사격을 해주었고 단거리 반격을 빠르게 한 덕분에 프랑스대대는 제 23 연대의 제 2 대대와 제 3 대대의 후퇴를 도운 후 5 월 18 일 오후 5 시, 철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적진 한 가운데에서 철수 작전이 매우 대담하게 이루어졌지만, 프랑스대대는 장대비 속에서 고된 등반을 해 고지 하나를 곧장 차지해야 했다. 바로 이곳이 한계령(Hangye) 동쪽에 위치한 643 고지로 한국군 제 5 사단에 연락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아군과 적군은 같은 전선에 뒤엉켜 있었다. 공군은 소양강(Soyang Gang) 계곡을 휩쓸며 모든 집중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제 2 사단은 화포 168 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군을 괴멸할 준비를 하라!"라고 알렸다. 실제로 프랑스대대 앞에서 화포 2 만 발이 발사되었고 폭격기들은 170 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 불바다 속에서 중공군은 움푹달싹 못한 채 박살 났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후방 부대와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아군의 반격에 밀려나 소규모로 찢어져 후퇴했다.

5 월 22 일 저녁, 제 187 공수연대는 제 2 보병사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 중 한 대대는 프랑스대대를 앞질렀다. 프랑스대대는 5 월 23 일, 후방 30km 지점에 휴식을 취하러 갔다. 이 휴식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

인제(Inje)에서의 대결

연합군은 즉각 반격했다. 추격을 시작한 사령관은 동쪽 산악지대에 발이 묶여 있는 중공군 3 개 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했다.

5 월 25 일, 제 23 연대는 제 2 사단 내 모든 전차를 동원해 특수 임무 부대를 편성하였다. 이는 붕괴된 중공군 무리 사이를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돌진하고, 가급적 바다에 도달해 중공군 3 개 군의 남은 부대들에 돌격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너무 선두에 있으며 38 선에 위치한 음양리(Umyang-ni)에 갇혀 있던 제 187 공수연대를 구출해야 했다.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밴 플리트(Van Fleet) 육군장관, 알몬드(Almond) 군단장, 러프너(Ruffner) 사단장은 부대들 한가운데에서 "좌우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인제(Inje)로 전진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서쪽에서는 제 7 해병연대가, 동쪽에서는 제 23 연대의 2 개 대대가 지원해준 덕분에 프랑스대대는 윌버스(Wilburth) 하사의 전차 부대와 함께 중공군의 저항을 빠르게 저지하고 255 고지에 도착했다. 28 일 정오, 프랑스대대는 음양리(Umyang-ni)에 도착했다. 밴 플리트(Van Fleet) 장군은 러프너(Ruffner) 장군과 함께 왔다. 밴 플리트(Van Fleet) 장군은 인제(Inje)로의 전진을 재개시켰고 프랑스대대와 제 23 연대 제 1 대대가 음양리(Umyang-ni) 교두보에 공격을 지속하는 동안 제 187 공수연대는 다시 출발했다. 저녁, 인제(Inje)에 도착한 공수연대원들은 포위당했다. 다시 한번 제 23 연대는 아군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9 일 정오, 제 23 연대가 인제(Inje)에 도착했고 장군들 역시 전투를 재개시키기 위해 왔다.

중공군이 견고히 지키고 있는 분지 가장자리를 제 23 연대가 점령하는 동안 공수연대원들은 바다 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프랑스대대는 366 고지를 차지해야 했다. 먼저 한국군 중대가 높은 절벽을 지키고 있는 중공군에 맞서 투입되었는데, 이곳에서 중공군은 낙하산 부대원들을 막아냈다. 한국군 중대는 포위 작전을 통해 이 절벽을 점령했다. 평야를 소탕한 프랑스대대는 지쳤지만, 위협적인 북한군 무리로부터 366 고지를 탈환했다. 5 월 30 일 새벽, 북한군 부대들의 분노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북한군은 중공군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희생을 감수하는 듯했다. 중공군은 아군의 진지를 통해 조금씩 무리 지어 빠져나갔다. 공격은 줄어들었고 전멸을 가까스로 모면한 중공군은 전쟁 초반 이후 1 백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명 손실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재정비를 마쳤다. 아군은 15km 를 더 진군했고 이후 공세는 잦아들었다. 고성(Ko-song) 협상이 시작되었다.

6 월 말, 전방은 안정되었고 제 8 군은 매일 불어나는 중공군 엄폐호 맞은편에 주둔했다. 프랑스대대는 처음으로 거의 한 달간 휴식을 취하게 된다.

2. 참호전

볼(Bol)¹⁵ 지구,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931 고지

8 월~9 월

7 월 25 일, 볼(Bol) 지구 남쪽과 동쪽 면에서 해병대와 교대하면서 프랑스대대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경험하게 되었다. 볼(Bol) 지구는 고도 500m 의 분지로 주변에는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이 에워싸고 있었다. 진지는 터널, 엄폐호 및 철망으로 견고히 구축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몽보아스(Monboisses) 사회복지사가 프랑스대대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녀의 정직함과 다정함,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의 사기를 돋우며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대대의 상징이 되었고, 전선에 여성이 있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미군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그녀를 높이 평가했다.

지형적 특성으로 전선이 조정되었다. 두껍고 뾰족한 산맥들이 이어져 있었으며 산맥들 고도는 점차 높아졌고 나무가 많은 깎아지른 경사면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진입하기 어려운 골짜기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러한 산맥들의 연속으로 인해 일련의 작전이 연달아 진행되게 된다. 볼(Bol)을 정복하기 위해 피의 능선을 정복해야 했고, 피의 능선을 정복하려면 곧 '단장의 능선'이라고 불리는 931 고지 산맥을 정복해야 했다.

¹⁵ 펀치볼이라는 이름은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 주둔한 미군의 중군기자가 지형의 모습을 펀치를 담는 그릇(볼)을 뜻하는 펀치볼이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했다.

많은 병사가 죽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한 달 동안 아군과 단장의 능선을 놓고 싸우면서 그들의 끈기력을 증명하게 된다.

9 월 14 일, 애덤스(Adams) 대령의 제 23 연대는 4 개 대대와 단장의 능선 전투에 나선다. 이는 784 고지, 894 고지, 931 고지, 851 고지를 연달아 점령하는 데 중요한 전투였으며 이 4 개 고지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4km 에 걸쳐 쪽 이어졌다. 또한 동쪽에서는 전투를 치르는 동안 선두에서 볼(Bol)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1243 고지를 확보한 한국군 제 5 사단과 연락하는 것이 중요했다. 유엔 프랑스대대는 한국군과 제 23 연대 사이에 주둔하고 있는 적군을 몰아내고 한국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프랑스대대는 드 보퐁(De Beaufond) 소령이 지휘했고 르 미르(Le Mire) 소령은 몽클라르(Monclar) 장군 참모부로 갔다. 제 1 중대와 제 3 중대는 화포로 파괴하지 못한 엄폐호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단시간에 두 중대에서 30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3 명은 장교였다. 하지만 702 고지까지 진군했던 지원 중대가 제 23 연대 제 2 대대의 공격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완벽히 자리를 잡았다. 세 차례에 걸친 전투로 150 명이 전사한 제 2 대대는 894 고지를 탈환했다. 그리고 제 23 연대 제 1 대대가 이곳에서 제 2 대대를 앞지르고 931 고지를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제 1 대대가 아무런 소득 없이 지치게 된다.

따라서 애덤스(Adams) 대령은 800 고지 동쪽 비탈을 통해 제 23 연대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를 투입하면서 931 고지 배후로 접근하기로 하고, 프랑스대대가 656 고지를 무력화하면서 이러한 이동을 보호하도록 했다. 연대 전차로 보강된 공병은 931 고지 아래로 향했다. 놀라운 위장술과 함께 산 측면에 파여진 통로에 숨어 있던 적군 포병대의 대응은 격렬했고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공격은 진척이 없었다. 게다가 적군은 공격에 저항하며 한국군 제 5 사단이 차지했던 1211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제 5 사단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던 프랑스군은 1052 고지에서 포위당해 제 5 사단과 합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측면에 계속 머무르고 있던 지원 중대가 제 23 연대 제 1 대대를 지원했고 제 1 대대는 남쪽을 통해 931 고지를 정면으로 다시 공격했다. 10 만 발 이상의 화포가 이 혼란스럽고 짓밟힌 고지 정상에 퍼부어졌고 이곳에서 북한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가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 1 대대가 고지에 도달했지만, 격퇴당하고, 기진맥진하며, 많은 병사가 죽은 탓에 참호로 피신하기 위해 공격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했다.

9 월 25 일 밤, 프랑스대대는 제 23 연대 제 2 대대와 교대해 북쪽을 통해 931 고지를 재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멈추지 않는 포화 속에서 밤에 교대하기란 어려웠고 9 월 26 일 아침, 오로지 제 2 중대와 제 3 중대만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결이 계속 끊겨 포병대의 준비 상태는 매우 미흡했다. 적군은 아군의 공격 출발 진지를 폭격했고 구필(Goupil) 대위가 전사했다. 오후 2 시 30 분, 제 3 중대가 공격을 하러 떠나자 적군의 사격이 이들이 전진하는 동안 계속되었고 피해가 막심했다. 제 2 중대의 1 개 소대가 제 3 중대의 1 개 소대를 앞질러 능선에 도착했지만, 북한군이 갑자기 사방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경기관총을 쏘아대며 나타났다. 소대는 후퇴해야 했다. 제 23 연대는 14 일 동안 병사 1,300 명을 잃었고 모든 공격의 부담을 홀로 견뎌냈다.

현장에 있던 제 2 사단장은 산맥을 포위하고 적군의 작전선과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단 전체를 투입해 문둥리(Mundungni) 골짜기를 통해 공격하면서 제 23 연대를 지원해야 함을 인식했다. 따라서

제 9 연대와 제 38 연대가 서쪽에 있던 한국군 제 8 사단과 연락을 취하면서 골짜기로 전진했고 단장의 능선 서쪽 급사면을 확보했다. 10 월 5 일, 외부 우회가 성공했다. 밤에 제 23 연대 제 2 대대가 931 고지 남쪽 능선을, 프랑스대대 제 2 중대가 북쪽 능선을 확보했다. 남은 건 851 고지뿐이었고 고지 앞쪽에 제 23 연대 제 1 대대가 머무르고 있었으며 적군은 프랑스대대에 달려들었다.

약 30 만 발의 화포가 쏟아진 산은 표면이 완전히 드러났지만, 마찬가지로 강력한 포병대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이 지옥에 무감각한 것처럼 보였다. 10 월 10 일 아침, 공격이 시작되려 했다. 르 미르(Le Mire) 소령은 바로 이날이 제 23 연대 제 1 대대에 합류한 미 지원군을 마주친 그가 자동 소총을 들고 있던 한 미군 병사 길버트(Gilbert)에게 말을 걸었던 날이라고 말했고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소령님, 보이십니까, 이 고지와 전투는 단장의 아픔과 같습니다." 이 고지와 전투는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 23 연대 제 1 대대의 공격은 실패했고 프랑스대대는 제 1 대대를 앞질러 851 고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드 보퐁(De Beaufond) 소령은 미군 1 개 대대가 실패한 이곳에서 그도 실패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단 1 개 중대로만 공격하면 위험을 더 잘 분산시킬 수 있고, 돌파하면서 이동하면 공격의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제 1 중대가 수류탄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를 동원하며 돌진했고 한 고지에서 버텼다. 제 3 중대는 대대의 중무기와 대공 서치라이트 섬광으로 지원받으며 제 1 중대를 앞질렀다. 제 1 소대가 침투했고, 제 2 소대가 소탕했다. 제 3 중대는 그들이 851 고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들은 851 고지에서 200m 떨어져 있는 봉우리를 확보한 것이었다. 851 고지 서쪽 비탈을 오르던 제 23 연대 제 2 대대는 이를 깨닫고 이러한 어긋남으로 인해 측면에서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다.

따라서 10 월 13 일, 제 2 중대가 이 곤란한 상황을 책임졌다. 뒤로(Dureau) 소위의 선두 소대는 제 2 중대 앞에서 곧장 돌진하는 대신에 골짜기를 통해 교묘히 침투했고 과감히 등반해 엄폐호 뒤쪽의 정상에 도착했다. 851 고지 정상은 소탕되었다. 소대는 다시 내려와 제 23 연대 제 3 대대를 가로막고 있던 엄폐호 배후를 공격했다. 오전 7 시 25 분, 애덤스(Adams) 대령은 다음과 같은 전갈을 받았다. "아군이 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아군이 고지를 지키고 있다."

제 23 연대는 병사 1,900 명을 잃었다. 포병대는 전방 관측자 16 명을 잃었다. 프랑스대대에서만 60 명이 전사했고 200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것이 미 제 8 군이 치른 마지막 공격전이었다.

1951 년 11 월

유엔 프랑스대대는 춘천(Chunchon) 지역의 가평(Kapyong) 근처에서 휴식을 취했다. 프랑스대대의 진정한 첫 휴식이었다. 프랑스대대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영웅들에게 상을 수여했으며, 프랑스대대를

지원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첫 번째로 모리스 드장(Maurice Dejean) 주일 프랑스 대사가 있었다. 도쿄(Tokyo)에 거주하는 프랑스 이주민 집단의 도움과 더불어 그의 개인적인 활동은 조국과 익숙한 동료들에게서 떨어져 있어 외로운 프랑스대대, 특히 도쿄(Tokyo)의 미국 전문 병원들에 나뉘어 입원한 부상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두 프랑스인 간호사 멜르 달로즈(Melles Dalloz)와 타데이(Taddéi)가 근무 중 가능할 때마다 부상자들을 찾고 만나러 갔다.

프랑스대대 참모부는 1951년 9월 18일, 장관 비서실의 통첩 제 178호로 이미 해체된 상태였지만, 몽클라르(Monclar) 장군은 프랑스대대의 지휘권을 드 세즈(de Sèze) 소령의 보좌를 받는 보레이(Borreil) 중령에게 넘긴 후 12월 6일이 되어서야 한국을 떠나게 된다. 리지웨이(Ridgway) 장군은 몽클라르(Monclar) 장군에게 훈공장(Legion of Merit) 가운데 오피서(Officer) 훈장을 수여했다.

철의 삼각지(Triangle de fer)

1952년 1월~4월, 528 고지, 400 고지, 1062 고지

새로 부임한 사령관 지휘 아래 유엔 프랑스대대는 금화(Kumhwa, 현재는 김화) 전선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곳은 '철의 삼각지(Triangle de fer)'라 불리며 서울(Séoul)로 향하는 주요 유역 중 하나를 굽어보고 있는 산악 지역에 있었다. 전초 기지에 머무르거나 예비 병력이 되는 상황이 번갈아 발생하는 동안 프랑스대대는 탄탄한 주저항선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 대대의 전투력과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고된 진지공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찰 및 매복 활동이 그 예이다. 중공군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았고 이러한 '술래잡기' 상황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레스(Barrès) 중위의 전초 기지 야간 공격이었다. 바레스(Barrès) 중위는 프랑스대대의 보조 방어선에 침입해 화포와 박격포의 포탄 세례를 퍼붓는 적군에 거세게 대항했다.

프랑스대대 지휘부는 제 1 중대장 파그니에즈(Pagniez) 중위, 제 2 중대장 말롱(Mallon) 대위, 제 3 중대장 르 타크(Le Tac) 대위, 본부 중대장 레이노드(Reynod) 중위, 본부 중대의 레리티에(L'Héritier), 공병 소대장 로제(Roger) 중위로 편성되었다.

프랑스대대가 재정비를 위해 가평(Kapyong)으로 내려갔을 때는 전투력을 잃지 않고도 혹독한 방어전을 치러 내는 경험도 했다. 바로 이 시기인 5월 4일, 영(Young) 장군은 미 제 2 보병사단 지휘권을 내려놓았고 이 지휘권은 프라이(Fry) 장군에게 인계되었다.

티본고지(Ty Bone)

1952년 7월~8월

7월 16일부터 프랑스대대는 역곡(Yokkok)천 남쪽 산지인 티본고지(Ty Bone) 남측 진입로, 즉 철원(Chorwon) 서부 주저항선에 재투입되었다.

프랑스군 진지 왼쪽에는 중공군이 사단 교대가 이루어지는 틈을 타 장악에 성공한 불모고지(Old Baldy)가 위치했다. 불모고지(Old Baldy)에서는 치열한 전투들이 진행되었고 이는 프랑스대대 전선에 영향을 미쳤다.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 중공군은 방어 상황을 탐색했다. 7월 24일, 여러 거점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당했고 특히 근거리 반격에 나서며 적군을 물리치는 자모트(Jamotte) 소위의 거점이 주요 공략 대상이 되었다.

7월 31일에서 8월 1일로 넘어가는 밤에 미군이 불모고지(Old Baldy)를 최종 탈환하면서 중공군의 공격은 잦아들었으나 끝없이 퍼붓는 폭우가 돌연 적군이 되었고, 이 폭우로 주둔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 여러 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타지아스코(Taggiasco) 대위가 자신의 임시 거처에서 사망했다. 타지아스코(Taggiasco) 대위를 이어 바레스(Barrès) 중위가 제 2 중대장으로 부임했다.

한국 병사들로 구성된 제 2 중대는 프랑스대대와 결속력이 좋았으며 이에 한국 사령부는 프랑스대대를 지휘하는 중령에게 한국군을 부사관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한 전우에게 즉시 보답할 수 있었다.

고되고 힘든 일과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선에서는 끝없이 경계 태세를 갖추어야 했고 영광 없는 희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이들의 용맹함은 매일 시험대에 올랐다. 프랑스대대는 전선에서 한 차례 더 머무른 후, 예비 병력이 된다.

화살머리고지(Arrow Head)

1952년 10월

프랑스대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에는 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능선이 뻗어 있는 그 형상 때문에 '화살머리고지(Arrow Head)'로 불리는 281 고지에 진출한다. 프랑스대대는 제 2 사단 우측, 즉 제 2 사단과 적군이 있는 백마고지(White Horse) 방향으로 길게 뻗은 산맥에 주둔한 한국군 제 9 사단 사이였다. 이 두 고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골짜기는 프랑스대대가 수호해야 했다. 제 1 중대가 281 고지를 확보하고 있었고, 능선에 두 개의 거점을 빠르게 구축한 공병 소대가 전방에서 지키고 있었다. 제 3 중대는 비탈과 골짜기에 있던 제 1 중대를 지원했고, 제 2 중대는 백마고지(White Horse) 끝단의 오르막 능선에 주둔하며 한국군과의 통신을 담당했다.

6일 새벽, 엄청난 폭격이 화살머리고지(Arrow Head)와 백마고지(White Horse)를 초토화시켰고 후방에 있던 지휘부와 아군 포병 중대에까지 날아들었다. 하루 종일 거센 공격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심각한 인명 및 장비 피해가 발생했다. 통신선을 계속해서 설치해야 했다. 오후 6시 45분, 중공군이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다. 페롱(Perron) 중위와 가브릴로프(Gavriloff) 상사 공병들은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전멸했다. 밤에는 281 고지 북쪽 비탈길에 중공군이 몰려왔다. 푸파르(Poupart) 중위는 포병대의 쏟아지는 탄막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지원군을 요청했다. 길루(Guillou) 소대가 먼저 도착하고 뒤이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병사들로 이루어진 데이어(Dayer) 원사 소대가 합류했다. 마지막으로 조메(Jaumet) 소위 명령에 따라 지휘부가 투입되었다. 281 고지 전방에서의 공격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공격이 쉴

새 없이 이어졌지만 제 2 중대와 화포 공격, 제 23 연대의 측면 화력 지원으로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한국군이 위치한 우측에서는 주전선이 돌파당했고 제 2 중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으며 중전차 중대 하나가 돌파구로 향했다. 중전차 중대는 전차 15 대를 나란히 배치시키고 중공군이 프랑스대대의 방어선을 넘지 못하도록 발포 장벽을 세웠다.

새벽 1 시경, 부사령관인 드 세즈(de Sèze) 대대장은 안정적으로 방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미군 중대 하나를 281 고지에 배치시켰다. 한편, 한국군은 육탄전으로 반격에 나서고 새벽에 주 전선을 탈환했다.

중공군의 공격은 끝이 났다. 아군의 방어에 압박을 받은 중공군은 철수를 시도하지만 아군의 발포로 초토화되었다. 281 고지 앞에 약 600 구 이상의 시신이 쌓이게 된다. 전리품은 엄청났다. 군기 2 개, 경기관총 및 자동소총 60 정, 중기관총 1 정, 바주카포 5 정, 박격포 7 문 그리고 막대한 양의 소총을 획득했다. 프랑스군의 피해는 심각했다. 43 명이 전사, 부상자 중 97 명은 이송되고 33 명은 자리를 지켰다. 전투는 10 여 일 동안 계속되었으나 게릴라전과 포격전 양상이었다.

프랑스대대는 이 전투에서 역사상 가장 큰 방어전을 치렀으며 진지를 지켜냈다. 하지만 공병 소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이 정예 부대의 희생을 기리며 두 번째 군 표창이 수여되게 된다. 프랑스대대는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비 부대로 남는다.

1952 년 11 월

한국에 1 년간 머무르기로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군에게 떠날 시간이 다가왔고 새로운 부대가 도착했다. 1952 년 11 월 28 일, 제르미니(Germiny) 중령은 부사령관 알렉산드르(Alexandre) 소령과 함께 프랑스대대 지휘권을 인계받는다. 또한 한 번도 도리를 저버린 적 없었던 한국 당국은 프랑스군과의 끈끈한 관계를 재차 강조하고자 했다. 이식만(Sygman Rhee)¹⁶ 대통령 역시 야영지에 방문해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고 이때 박인엽(Pakinyup)¹⁷ 장군이 프랑스대대 앞에서 표창을 읽었다. 그의 형은 한국군 제 6 사단을 지휘했으며¹⁸ 프랑스대대 명예 중사로 임명되었다.

12 월 4 일, 아이젠호버(Eisenhover)¹⁹ 대통령은 제 2 사단의 사령부를 방문했고 프랑스대대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경의의 의미로 대대 휘장을 달아줬다.

12 월 18 일, 프랑스군과 한국군이 함께 전투에 임하는 방식을 호평했던 미 사령부는 1 개 중대에게 미 사단과 한국 사단을 연결하는 저지 진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프랑스에서 도착한 병사들이 혹한의 날씨에 놀랐기 때문에 오르사(Orsat) 대위가 지휘하는 제 1 중대가 이 내부 방어선을 담당하게 된다.

¹⁶ 이승만 오기

¹⁷ 백인엽 오기

¹⁸ 백선엽 장군은 제 1 사단을 지휘했다고 알려져 있어 원문 오류로 추정된다.

¹⁹ 아이젠하워 오기

중대 지휘부는 제 1 중대장 오르사(Orsat) 대위, 제 2 중대장 르뢰브르(Lefevre) 대위, 제 3 중대장 조잔(Jozan) 중위, 본부 지원 중대장 조파르(Jaupart) 대위, 대대 지휘 중대장 코스테로(Costero) 대위로 편성되었다.

대대는 휴식을 취하고 훈련받기 위해 서울(Séoul)과 인접한 아면리(Amyon-ni)²⁰로 보내졌다. 대대는 여기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그날 대대원들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가 모아서 보내온 정성스러운 소포를 받게 된다.

전쟁 발발 3 년째

1953 년

파리(Paris)에서도 현지 상황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전우애를 열렬히 찬양했다. 프랑스, 미국, 한국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1 월 9 일, 생-제르맹-앙-레(St-Germain-en-Laye)에 있는 유엔 프랑스대대의 후방 부대에서 열병식이 열렸다.

미 제 2 사단의 퇴역 군인들은 ‘함께한 고난과 희생,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프랑스의 형제애를 기리며’ 명예기를 수여했다.

주앙(Juin) 총사령관, 리지웨이(Ridgway) 장군과 그의 부인, 프리먼(Freeman) 장군, 전규홍(Chun Kyu Hong) 주불공사는 전쟁 시 정무 차관인 드 슈비네(de Chevigné)를 포함, 프랑스 당국과 만났으며 여기에는 몽클라르(Monclar) 장군도 참석했다. 이들 옆에는 생시르 사관학교 생도복을 입은 사관생도 이재학(Lee Jaie Hak)과 용응상(Yong Oung Sang)도 있었다. 프랑스군과 함께 싸운 최초의 한국군 가운데 두 명이었으며 생시르 사관학교 입학을 인정받은 바 있었다.

이 행사는 1 월 30 일 한국에 알려져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가 많았으며 같은 날, 프랑스대대는 전선에 재배치된다는 소식을 접한다.

송곡(Song Kok) 전투

1953 년 2 월~3 월, 마전리(Majon Ni) 지역

미 제 23 보병연대가 거제도(Kojédo)에서 포로 감시를 맡게 되어 프랑스대대는 미 제 23 보병연대를 대표해 리틀지브롤터고지(Little Gibraltar)와 후크고지(Hook)에서 영연방 사단과 교대한 제 2 보병사단에 남아 서울(Séoul)로 이어지는 두 유역을 방어한다.

프랑스대대 우측에는 태국군이 있었고 프랑스군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탄막 사격을 퍼붓는 태국군의 민첩성을 보고 ‘검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된다. 좌측에는 네덜란드군이 있었으며 이들은 프랑스

²⁰ 암면리 오기

정찰대 담당 지역에 그들의 야간 정찰대를 섞이게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해 '괴짜'라는 별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장의 형세를 보면 프랑스대대가 상대적으로 깊숙한 곳에서 정비를 할 수 있었다. 큰 골짜기에 두 돌출지대가 있었고 정면에 위치한 고지들에는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제 3 중대가 좌측 돌출부, 제 1 중대는 우측 돌출부에 주둔했으며 일명 '만주곡(Vallée Mandchou)'을 통해 태국군과 연결되어 있었다. 제 3 중대와 제 1 중대 사이에는 일명 '기쁨의 협곡(Vallée Heureuse)'이 있었다. 제 3 중대 전방에는 평평한 봉우리인 '송곡(Song Kok)'이 있었으며 낮에는 지켜지지 못했지만, 밤에는 모든 전투의 축이 되게 된다. 능선 위 후방에서는 1 개 전차 소대로 더욱 강해진 제 2 중대와 지원 중대가 사령부를 보호하는 제 2 전선을 구축한다.

모든 진지는 적의 감시 아래 있었고 주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미동이 있을 경우 포격을 퍼붓고 기관총 일제사격을 실시했다. 때문에 모든 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개리그(Garrigue) 중위의 공병들이 적외선 조준기 사용법을 연습, 중공군 정찰대를 여러 번 놀라게 하고 이들과 여러 번 교전하는 동안 청음 초소, 정찰, 매복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중공군 방어 형태가 어떤지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푸파르(Poupart) 중위가 이끄는 정찰대는 중위가 비어있다고 생각한 중공군 참호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으나, 곧 간파되었고 영국군 지원 포병인 쇼어(Shore) 소령의 포위 사격 덕분에 우호 라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가져온 정보는 중요했다. 정보에 따르면 약 20km 에 걸쳐 펼쳐진 중공군 방어 체제에서 중공군은 정해진 진지가 없었으며 진지를 계속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로 '발톱으로 할퀴는' 이 기간에 프랑스군은 용맹함을 보여주며 적군에게 진지가 견고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전사자는 15 명에 달했다.

4 월, 예비군으로 남은 프랑스대대는 이후 캠프 케이시로 이동해 재정비하고 여기에서 포로 관리 임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 미 제 23 보병연대와 합류한다.

4 월 14 일, 제르미니(Germiny) 중령은 프랑스대대의 한국군이 프랑스인 전우들과 얼마나 통합되었는지 잘 보여주기 위해 프랑스대대의 검은색 베레모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베레모는 의장용으로 한국군은 지금까지 쓸 일이 없었고, 항상 철모를 썼기 때문에 다른 모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다시피 했다. 또한 제르미니(Germiny) 중령은 한국군 중 최정예를 모아 자신의 호위병을 재편성하여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소대 형태로 운용했다.

4 월과 5 월에는 전선에서의 대응에 따라, 특히 주저항선에 타격을 입히려는 중공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프랑스대대는 내부 방어선 진지에 주둔하며 정비를 한 후 캔자스(Kansas) 선으로 가서는 토목공으로 변신했다. 개리그(Garrigue) 중위와 소속 공병들은 방어 소대를 위해 곡괭이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임시 거처들과 망루 1 개를 만드는 동시에 미 공병이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위장술을 발휘했다.

5 월 1 일에 프라이(Fry) 장군이 사단 사령부를 떠나고 배링거(Barringer) 장군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4 월 27 일에는 스틸웰(Stilwel) 대령도 이미 연대를 떠나 다렌(Dahlen) 대령에게 지휘권을 넘겨준 상태였다. 사령부는 바뀌었지만 정신은 계승되었고 관계는 공고해졌다.

중가산(Chungasan)²¹지구

6 월~7 월, 미주리(Missouri) 선

비상 훈련을 하던 프랑스군은 훈련을 지속하는 가운데 다른 미군 부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몇몇 인사를 맞이하기 위해 휴식을 하기도 했다. 앞서 주앙(Juin) 총사령관이 도착, 이후 폴 레이노(Paul Reynaud)²²가 전선에 도착해 프랑스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데 전향적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인도차이나반도(Indochine) 해군 사령관을 맡은 오보와노(Auboyneau) 해군 대장, 드장(Dejean) 주 일본 프랑스 무관이자 유엔과의 연락을 책임졌던 맹상(Maincent) 해군 대령이 프랑스군의 뛰어난 정신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다.

6 월에는 휴전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식은 한국에서 반향을 일으켰고 중공군은 위협적인 태세를 취했다. 제 2 사단이 6 월 20 일, 금과(Kumkwa)²³의 북서쪽 지역 전선으로 다시 향했을 때 중공군의 공격 준비 징후들이 더 많아졌다. 프랑스대대는 제 2 사단 오른쪽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고 미주리(Missouri) 선의 해리고지(Harry)에 주둔하고 있는 그리스 대대와의 연락을 유지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프랑스군의 배치 지점은 불편했다. 프랑스군은 돌출부가 연속적으로 있는 암석 능선에 있었는데, 돌출부들은 아군의 유일한 전초 기지와 교전하고 있던 중공군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 높은 능선에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한 급사면에 구축된 저항기지에 주둔한 제 2 중대는 우편으로는 그리스군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제 1 중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왼편으로는 평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우회를 막는 임무를 지닌 제 3 중대가 그리스군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제 고전적인 양상이 된 방어전은 매일 폭격과 야습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중공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동부의 한국군 사단에 더 거센 공격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미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예비군의 연락로를 차단하기 위해 중공군은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두 배로 늘렸다. 앞서 7 월 11 일에는 진지를 열심히 탐색했고 7 월 18 일에는 120mm 박격포를 동원해 뒤로(Dureaau) 중위의 전초 기지를 박살 내지만 향후 전초 기지는 유지되게 된다. 중공군은 그들이 없애려 시도했던 아군의 정찰망을 통해 정찰을 더욱 강화한다. 투레(Thuret) 중사의 2 중대 정찰대는 일명 '작은 클레베르(Petit Kléber)'의 청음 초소에 있었는데, 손실이 있었지만 반격에 나서 정보 획득에 성공했다. '몽마르트르

²¹ 중가산 오기

²² 당시 부총리

²³ 금화(현재는 김화) 오기

언덕(Montmartre)'에서 감제하고 있던 모노(Monod) 소위가 이끄는 제 3 중대 경찰대는 적절한 때에 후퇴했다. 와리옹(Warion) 하사의 제 1 중대 경찰대는 '붉은 봉우리(Piton Rouge)'에 있었다. 따라서 뒤푸르(Dufour) 소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제 1 중대 경찰대를 구출하기 위해 지원 중대는 사격을 퍼부었고 사단 포병대가 지원에 나섰다. 적군이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지 않은 채 밤이 저물었다.

프랑스군은 계속 보초를 켜고 적군이 침입할 기미가 보일 때마다 전력을 다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포병대의 보복전이 때때로 더욱 거세지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양상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7 월 27 일 오후, 휴전이 선언되기 불과 몇 분 전까지도 중공군의 대포가 날아들었다.

휴전 조치에 따라 각자의 진지를 해체한 교전국은 72 시간 이내에 각각 2km 씩 후퇴해야 했다. 프랑스군은 경계선에 위치한 전초 기지를 남겨두고 후방 진지를 준비하면서 해체 작업을 충실히 이행했다.

8 월 3 일, 프랑스대대는 한탄천(Hantancheon)이 가로질러 단절되는 지역에 새로운 방어 구역을 조직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때 인도차이나반도(Indochine)로 출발해야 한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전쟁은 그곳에서 계속되었고, 프랑스는 한국의 프랑스대대 같은 정예 부대를 무용지물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10 월은 이별의 시간이었다.

10 월 8 일, 프랑스대대는 자신들과 함께 싸우고 잘 어울려 지냈던 한국군을 한국 부대로 되돌려 보내야 했다. 작별을 위해 프랑스대대 내에서 열병식이 거대하게 열렸다. 초기 한국군 병사 중 한 명인 이웅섭(Lee-Ung Sup) 하사는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40 명은 해외파병 무공십자훈장(Croix de Guerre TOE)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대대 사령관인 중령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하사 10 명과 중사들 및 일등병들을 임명했고 이후 이들은 한국 전우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10 월 9 일, 미 제 2 사단 소속 부대들은 모두 모여 프랑스대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프랑스대대 앞에서 행진했다. 프랑스대대 사령관은 훈공장(Legion of Merit)을 받았다. 이 감동적인 열병식은 제 8 군단장 테일러(Taylor) 장군이 주재한 것으로 그 옆에는 제 9 군단장 히키(Hickey) 장군이 있었다.

10 월 13 일, 마지막으로 한국 당국은 프랑스군에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전날에는 제르미니(Germiny) 중령이 이식만(Sygman Rhee)²⁴ 대통령을 만났다. 13 일에는 손본일(Von-II-Sohn)²⁵ 국방장관이 프랑스대대에 수여하는 두 번째 대통령 표창을 부대들 앞에서 읽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제르미니(Germiny) 중령은 을지무공훈장을, 알렉산드르(Alexandre) 사령관과 드투르베(Deturbet) 사령관은 충무무공훈장과 금성훈장을 받았다.

²⁴ 이승만 오기

²⁵ 손원일 오기

프랑스대대의 한국군 연락 장교 이충업(Lee-Chong-Up)²⁶ 대위와 민병균(Minh Byong Kion) 장군은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 훈장을 백선엽(Paik Sun Yup) 장군은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Officier de la Légion d'Honneur) 훈장을 받는다.

11 월 6 일, 프랑스대대는 당당히 한국을 떠났다. 3 년 전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이상적인 싸움에서 연대와 협업이라는 감정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주는 그 모든 것 덕분에 충만했다. 이들은 큰 희생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인도차이나반도(Indochine)에서의 또 다른 운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대대는 이상을 지켜주고자 했던 이들 옆에 그리고 함께 싸웠던 이들 옆에 여전히 같이 있었다. 고통을 겪었지만 좋아하게 된 한국 땅에서 그들의 깃발은 여전히 나부끼고 있었다. 칼다이루(Caldairou) 중위 휘하 병사 15 명의 상징적인 파견대는 유엔군 산하 부대로 남아 한국을 지켰다.

²⁶ 이충업 오기